

# 17~18세기 상주지역 남인·노론계 서원의 인적구성 분석

—도남·홍암서원을 중심으로—\*

박 소 회\*\*

- I. 머리말
- II. 17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과 활동
- III. 18세기 홍암서원의 인적구성과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
- IV. 맺음말

## 【국문초록】

현재 상주 지역에는 조선후기 영남 남인·노론계를 대표했던 도남서원과 홍암서원이 있다. 도남서원은 17세기 류성룡·정경세의 문인을 중심으로 상주 전 사족층이 참여하여 건립하였다. 이 시기는 당색의 갈등보다는 노수산·류성룡·정경세의 추배과정에서 안동·예안 사림과의 갈등이 수반되었고, 상대적으로 여헌학단과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서원 방문자를 기록한 『심원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660년 도남서원은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을 중건하기 위해 15개 읍에 부조를 요청하였다. 각 지역을 보면 안동·예안권은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우도 지역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상주에는 집권노론의 비호 아래 홍암서원이 건립된다. 이 서원은 상주의 노론계 가문 창녕성씨·인천채씨·평산신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객원교수(thgm10819@hanmail.net)

이후 향내 서산서원과 충의단까지 건립되면서 자파세력을 결집시켜나갔다. 이들은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상주목사 趙正萬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알고 항의통문을 보내기도 했고, 노론계 인사들이 도남서원을 장악하고 원장을 선출하는 등 남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1738년까지 남·서인계가 번갈아 가며 원장을 맡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도남서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743년부터 도남서원은 다시 남인계가 원장을 맡았고, 19세기에는 당대 석학이자 정종로 문인이었던 柳尋春(류진 중손)을 비롯하여 李敬胤(이만부 증손), 姜世綸 등이 원장을 맡으며 서원의 위상 역시 강화되어 갔다.

주제어 : 정경세, 류성룡, 도남서원, 흥암서원

## I. 머리말

서원은 조선시대 사족의 공론 수렴처로서 그 인적 구성은 원임·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당색·지역에 따라 조직체제나 자격·임기·임무 등은 일정부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대별해 보면 영남 남인계 서원과 서인계 서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영남의 대표 지역 중 하나인 상주는 지리적 특성상 안동과 인접해 있어 일찍이 남인 기반인 퇴계학파의 일원들이 많았다. 또 호서지역과도 가까워 기호학파와의 교류도 있어왔다. 그러한 배경 아래 17세기 상주에는 영남을 대표하는 남인계 도남서원이 건립되었고, 18세기에는 노론계 거점인 흥암서원이 집권세력의 비호 아래에 건립되었다. 대체로 17세기는 도남서원이 상주 공론을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했으나 18세기 향내 남·노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도남서원의 원임구성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나타났다.

1 이수환(2001),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103쪽.

현재까지 진행된 상주지역 남·노 서원에 대한 연구는 상주 사족의 동향 속에서 파악되거나, 개별 서원을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전자의 경우 상주 사족의 형성과 임진왜란 후 활동, 남·서인계 인물의 등장 이후 남·노 서원의 건립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sup>2</sup> 좀 더 세부적으로는 상주 향교 靑衿儒生이 향안·도남·흥암서원 院案에 입록된 추이를 파악하여 향교와 재지사족 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sup>3</sup>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 원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상주사족과 서인계의 갈등을 확인한 연구,<sup>4</sup> 정경세 학단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인들을 중심으로 도남서원 창건과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한 연구<sup>5</sup>가 있었다.

후자로는 도남서원 창건부터 노수신·류성룡·정경세의 추배과정을 파악하거나<sup>6</sup>, 도남서원 원장 분석을 통해 서원 주도세력의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서원의 詩會 양상을 분석한 연구<sup>7</sup>, 흥암서원과 근암서원의 내력과 운영실태를 다룬 연구<sup>8</sup>, 옥동서원의 승원과 사액과정 및 18~19세기 서원의

2 김형수(2005),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김학수(2007),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수(2016), 「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7, 조선시대사학회 ; 이수환·채광수(2016),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79, 조선시대사학회 ; 송석현(2016),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 이수환(2016),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 유기선(2003), 「17~18세기 尙州 鄕校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송석현(2015),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채광수(2020),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6 김학수(2011), 「道南書院의 창건과 학문·정치·사회적 지향」,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7 채광수(2021),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 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8 이수환(2014), 『서원향사: 흥암서원·대로서』, 국립무형유산원 ; 이병훈(2019),

인적·경제적 기반과 향내 갈등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sup>9</sup>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조선시대 상주 사족의 실체는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졌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도남·홍암서원에 대한 개별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동 시기 두 서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7~18세기 상주 지역 남·노 서원의 비교사적 차원에서 각 서원의 인적 구성을 분석하고 향촌 내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각 서원의 『심원록』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두 서원의 실체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17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과 활동

### 1. 17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

1606년(선조 38) 상주 지역 최초로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제향하는 道南書院이 창건되었다. 서원 건립 과정에서 정경세는 「建院通文」 작성 및 주요사항들을 스승인 류성룡과 상의하였고, 이준은 1607년(선조 38) 사액을 청하는 「請額明文」을 지어 경상감사에게 올렸다.<sup>10</sup> 당시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은 「道南書院倉說契案」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정경세·전식·이준 등 류성룡의 문인들을 비롯하여 약 238여명이 참여할 만큼 상주 전 사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대체로 류성룡·정경세 문인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成震丙 등 노론계 가문의 인사들도 17세기 중후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

「16~18세기 문경 近岳書院의 변천」, 『영남학』 7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병훈(2020),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嶺南學』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9 김순한(2022),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김학수(2011), 앞의 논문, 72쪽.

다. 이처럼 건립직후부터 노론계 흥암서원이 창건되기 전까지 도남서원은 상주 사론을 대변하는 곳으로 기능하였다.

정경세는 건립 단계부터 도남서원을 영남 사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이덕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남의 儒賢들을 합사하여 영남의 搢紳들을 이끌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sup>11</sup>라 한데서 영남 首書院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포부를 알 수 있다. 이후 도남서원은 1621년(광해군 13) 안동·예안 사족을 중심으로 「청참이이침소」가 올라갈 때 반대의사를 보임으로써 영남사론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며 독자성을 구축해 나갔다.<sup>12</sup>

이후 도남서원은 1617년(광해군 9) 노수신 종향, 1631년(인조 9) 류성룡, 1635년(인조 13) 정경세까지 추배하면서 상주권 내 이황→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퇴계학통을 공식화하고 도내 남인계 서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원임의 명단에서도 드러난다. 통상 남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院長·有司체제로 알려져 있다.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며 院中의 대소사를 총괄하고, 유사는 서원의 실무를 담당하였다.<sup>13</sup>

현재 도남서원에는 총 4책의 『임원록』이 있어 원임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기별로는 1664~1747년 353명, 1802~1836년 278명, 1836~1845년 83명, 1846~1871년 188명으로 총 902명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도남서원은 유사 대신 院長·齋任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청대일기』에 나오는 재임 기록을 보면 그 역할은 유사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 도남서원에서 하인이 와서 류 재임의 편지를 받아 보았다. 그저께 밤, 동쪽 광 속에 보관해 둔 齋服 열두 벌과 백지 20여 권·늦잔 두 쌍을 도둑맞았다고 한다. 이러한 때의 인심은 놀랍거나 괴이쩍을 것이 못되나, 또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어설피게 저장한 소치이니 어찌하겠는가.  
...<sup>14</sup>

11 鄭經世, 『愚伏集』 권9, 書, 「與李蕘陰 德馨」.

12 김학수(2011), 앞의 논문, 95쪽.

13 이수환(2001), 앞의 책, 114쪽.

... 재임이 나와서 呂君鑑에게 통문을 내고, 또 향사를 거행할 때 현관에게 줄 통문을 써서 남겨두었는데, 향사를 거행하기 전에 다시 오기가 어려워서이다. ...<sup>15</sup>

... 재임 趙聖楫이 보러 와서 사당 수리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는 근래에 들어와 비가 새고, 들보 아래의 벽이 무너져 내린 곳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무너지려는 곳도 많이 있어서 너무 미안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길일을 잡아 移安한 후에 수리하려고 한다. ...<sup>16</sup>

유사들의 업무는 서원 춘추제례와 분향례의 현관이 되거나, 현관·집사를 차출하는 일, 제례 참석 요청 통문 발송, 재정 및 집물 관리 등이 있었다.<sup>17</sup> 위 기사를 보면 도남서원의 재임 역시 서원의 집물을 관리하고 향사를 거행할 때 통문을 돌리는 일, 건물 보수 등 서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서원은 1868년(고종 5) 상주목사 鄭基永이 원장을 맡으면서 원장·一有司·재임체제가 되는데, 이는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과 함께 고을 수령이 원장을 맡았기 때문이었다.<sup>18</sup> 그리고 수령이 원장을 맡다보니 기존 원장은 일유사라는 직명을 맡게 되었다. 다만 1년 뒤 다시 일유사·재임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수령 대신 기존 원장이 그대로 일유사를 맡았다.<sup>19</sup>

그렇다면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의 원임은 어떤 사람들이 맡았는지 다음 표를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權相一, 『淸臺日記』, 戊辰年[1748] 4월 22일.

15 權相一, 『淸臺日記』, 己巳年[1749] 1월 5일.

16 權相一, 『淸臺日記』, 癸酉年[1753] 3월 15일.

17 윤희만(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7쪽.

18 『고종실록』, 고종 5년 9월 3일.

19 상주의 또 다른 남인계 서원인 옥동서원도 중앙 조치에 따라 1868년부터 원장 [목사·일유사·재임체제가 나오고 있다.(김순한(2022), 앞의 논문, 109~111쪽).

〈표 1〉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 원임 명단

순번	연도	원 장		齋任
		이름(본관)	비고 <sup>20</sup>	
1	1664	趙稜(풍양)	서애·우복 문인 趙光璧 후손	趙東益, 洪陽震
2	1666	黃緬(장수)	우복 문인	金相元, 金聲珮
3	1667	柳千之(풍산)	서애·한강·여현·우복 문인 柳珍子, 張應一門	
4	1671	成震丙(창녕)	成澗 손자	柳百之, 洪陽震
5	1672	洪好可(부림)	서애·우복 문인 洪鎬子 근암서원 이덕형 병향 주도	申命鶴, 趙德胤
6	1675	金以載(의성)	우복 문인, 金廷賢(한강·동강·우복) 문 子	趙振胤, 金汝鎭
7	1676	權坵(안동)	권상일 증조부 근암서원 창건 주도	金汝鎭, 李在隆, 趙東郊
8	1677	柳千之(풍산)	재임	趙東郊, 趙泰胤
9	1682	權坵(안동)	재임	柳全, 曹夏徵, 金汝鑑
10	1683	柳千之(풍산)	재임	金汝鑑, 趙彥光
11	1684	孫萬雄(경주)	서애·우복 문인 孫禧 손자 이현일 문인	金守長, 康習
12	1685	金世繼(영동)	우복 문인 金遵子	趙東胤, 李碩至
13	1686	鄭錫喬(진양)	정경세 증손	康世楷, 曹夏承
14	1687	李在憲(홍양)	서애 문인 李塤 손자	康世楷, 曹夏承, 權份, 姜均
15	1688	金鍵(상산)	金弘敏 손자, 종조부 金弘微	姜均, 金汝鎬, 金紀長
16	1688	鄭堯錫(동래)	우복 문인 鄭榮後 손자	柳昌河, 趙彥琦
17	1689	宋穎(여산)	우복 문인 宋以鎭 손자	柳昌河, 趙彥琦, 金胄一, 趙泳
18	1689	金鍵(상산)	재임	高漢翊, 曹夏英, 趙應胤, 李碩至, 姜珪, 李泰至, 康守楷, 李汝達
19	1692	李在憲(홍양)	재임	金夏燮, 金顯基, 趙世瑒, 趙彥琦
20	1693	鄭之鍵(동래)	우복 문인 鄭榮後 증손	金顯基, 曹夏龜
21	1694	金鍵(상산)	재임	曹夏龜, 趙欽(心), 趙泳, 柳翰可, 李鼎至, 趙世瑒, 王三達
22	1695	金宇泰(청도)	우복 문인 金繼美 손자 이현일·홍여하 문인	趙灑, 李魯華, 姜碩宗
23	1695	孫萬雄(경주)	재임	姜碩宗, 李魯華, 趙自敬, 徐義錫
24	1696	申弼成(평산)	우복 문인 申尙哲 증손	徐義錫, 金胄一, 高師錫
25	1697	李葆英(신평)	미상	金胄一, 趙東旭, 王三達

순번	연도	원 장		齋任
		이름(본관)	비고 <sup>20</sup>	
26	1698	宋穎여산	재임	康汝楷, 李善至, 金景濂
27	1698	鄭錫喬진양	재임	金景濂, 金靑世, 金栢
28	1699	孫萬雄경주	재임	韓翼舜, 蔡夢徵, 韓翼采, 趙彥鎮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 원장은 총 17개 가문에서 확인된다. 1682년(숙종 8) 전까지는 원장의 임기가 부정기적이었다면, 이후로는 거의 1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또 특정 가문에서 원장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가문에서, 상주 사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6세기 중후반 이래 상주 남촌 일대에 상산김씨 김비공계·진양정씨·홍양이씨·여산송씨가 정착해 있었고, 화령에 광주노씨, 중모에 장수황씨, 산양에 부림홍씨·안동권씨, 낙동 주변에 풍양조씨 등이 세거하고 있었다.<sup>21</sup> 풍산류씨도 1618년(광해군 10) 안동 하회에서 이거해온 뒤 이준의 딸과 정경세의 손자를 며느리와 사위로 맞으면서 지역사회에 안착해 있었다.<sup>22</sup> 이들 가문이 원임을 맡음으로써 도남서원은 상주 사족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도산서원의 경우 광산김씨·진성이씨·봉화금씨의 원장직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sup>23</sup>

원장의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경세의 후손·문인, 문인의 후손 참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장 정석교는 정경세의 증손이고 황면·김이재는 문인이다. 또 문인 정영후·손이진·김계미·신상철[우복 門], 조광벽·홍호·손당[서애·우복 門], 류진[서애·여헌·우복 門], 김정건[한강·동강·우복 門]의 후손이 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20 채광수(2020), 앞의 논문, 72쪽 참고 및 보완.

21 송석현(2015), 앞의 논문, 12, 53쪽.

22 채광수(2021), 앞의 논문, 15쪽.

23 우인수(2013), 「조선 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02쪽.

한편 문인은 아니지만 1687(숙종 13)·1692년(숙종 18) 원장을 지낸 이재현과 1671년(현종 12) 원장 성진병의 경우 조부가 도남서원 창건에 참여한 바 있다. 전자는 정경세와 함께 서애문하에서 수학했던 이전이며 후자는 서애·우율의 문인이었던 성람이다. 특히 성진병은 상주 지역 대표 노론계 가문의 일원이지만 당대 서애계와의 혼반 및 남인계 사족들과의 교류 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95년(숙종 21) 원장을 지낸 청도김씨 金宇泰의 가문도 남·노가 나누어져 있었다. 이 가문은 17, 18세기에 모두 원장을 역임하였는데, 당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청도김씨는 金九鼎대에 상주에 정착한 후 손자 金以仁의 5대손 金三樂이 신석번·석형 형제, 성진항 등과 교류하였고, 창녕성씨를 후처로 맞으며 자연스럽게 노론화되어 갔다. 이들의 후손은 18세기 노론이 도남서원을 장악했을 때 원장을 역임하게 된다.<sup>24</sup> 반면 김우태는 김이인의 동생 金以禮의 5대손으로, 조부 김계미가 정경세의 문인이었고, 그 역시 흥여하·이현일의 문인이었다.<sup>25</sup> 따라서 17세기 도남서원의 원장은 이들 남인계 인사들이 역임하고 있었다.

한편 齋任 명단을 살펴보면 대체로 원장과 비슷한 양상이다. 원장을 지낸 가문과 같은 성관이 많은 가운데, 康·姜·高·曹·王·徐·韓·蔡氏<sup>26</sup>가 추가되어 있다. 이중 가계가 확인되는 신천강씨·창녕조씨·청주한씨를 보면 모두 『도남서원창설계안』의 회원이자 우복 문인의 후손들이다. 먼저 신천강씨는 문인 康用侯·康用良의 손자 世楷·守楷가 재임을 지냈고<sup>27</sup> 창녕조씨에서도 문인 曹希仁과 사촌지간인 曹克仁 증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sup>28</sup> 청주한씨도 문인 韓

24 이수환(2016), 앞의 논문, 70쪽.

25 洪汝河, 『木齋集』 권12, 附錄, 「祭文」; 「鎭陽及門錄」.

26 인천채씨는 蔡紹觀의 6대손 蔡夢徵이 재임을 지냈다. 이 가문에서는 채소관의 형 胤觀계열에서 함창에 거주하던 6대손 蔡河徵이 송시열 문인이 되었고, 산양 죽림에 거주하던 또 다른 6대손 蔡獻徵은 갈암의 문인이 되었다.(이병훈(2019), 앞의 논문, 207쪽).

27 신천강씨대동보편찬위원회(2007), 『信川康氏大同譜』 1권, 가승미디어.

克昌·韓克成의 손자 翼舜·翼采가 확인된다.<sup>29</sup>

그리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여헌계와 관련된 인물도 확인된다. 이는 서애계와 장현광의 교유가 류성룡의 고제인 정경세의 학단으로 연장된 것이라 보여진다. 먼저 원장 흥여하는 부친 흥호가 우복 문인인 반면 그는 장현광의 아들 張應一과 교유하였고,<sup>30</sup> 류천지는 부친 류진이 서애·한강·여헌·우복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장응일의 문인이 되었다. 성진병 역시 장응일과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sup>31</sup> 그의 동생 成震井은 신석번의 문인이자 장현광의 문인이기도 했다. 간접적으로는 金鍵의 종조부 김홍미가 장현광의 생질 노경임과 同孀간이다.

장현광은 1634년(인조 12) 상주 유림들과 회합하며 講信契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으로 全湜·金知復·趙光璧·柳珍·金秋任·全克恒전식 귀 등이 있었다.<sup>32</sup> 전식은 류성룡과 장현광의 문인이었고, 김지복·조광벽·류진·김추임은 모두 정경세의 문인으로, 이들은 『도남서원창설계안』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여헌학단은 도남서원에 류성룡·정경세를 추배할 때 참석하게 된다. 이상 17세기 도남서원은 대체로 서애·우복계 열의 남인계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원임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 2. 류성룡·정경세 추배와 명륜당 중건

도남서원 창건을 주도했던 정경세는 류성룡 만년인 1602년(선조 35) 무렵부터 서애문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류성룡 사후 1614년(광해군 6) 병산서원 봉안문 및 향사축문을 작성하였고,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에

28 창녕조씨태보경공파보소(1990), 『昌寧曹氏太僕卿公派譜』上, 회상사.

29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2017), 『丁酉七校淸州韓氏大同族譜』, 뿌리정보미디어.

30 洪汝可, 『木齋集』, 「奉呈張大成 應一 號聽天 時守金山」.

31 張應一, 『聽天堂集』 권6, 付祿, 「士林祭文 侍教生柳千之」·「輓章 掌令成震丙」.

32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권9, 付祿, 「拜門錄 門人申悅道」.

류성룡·김성일의 합향까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산서원 측의 반발도 있었으나 이 역시 정경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마되었다. 이후 두 제향자에 대한 중향·배향 논란과 위치 문제도 정경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로써 서애·학봉은 도산서원에 중향되어 있던 조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sup>33</sup>

이후 1631년 도남서원에서는 서애·우복 문인의 주도 하에 류성룡을 배향하게 된다. 9월 6일 봉안식에 참석한 외부 사람만 하더라도 약 87명에 달했고, 상주인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sup>34</sup> 당시 참석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1631년 류성룡 위판 봉안식 참석자 명단

지역	수	이름	기타
안동	27	權潤, 權沆, 權堉, 權坵, 權文奎, 柳尙謙, 金瓌, 金宣+兒, 金世英, 金希振, 南之斗, 柳宗之, 柳元定, 朴承燁, 宋尙賓, 安道全, 李克溫, 李面漢, 李信郁, 李廷吉, 李曾孝, 李榮業, 張爾憲, 鄭基萊, 鄭山輔, 鄭維城, 鄭維袞	權堉: 權益昌 문인(『湖陽集』 『湖陽先生門人錄』) 權坵: 권상일 증조부 柳宗之: 류운룡 손자 柳元定: 류성룡 손자, 정경세 문인, 병산서원 재유사(1635년 외 5회) 朴承燁: 병산서원 재유사(1624년 외 1회) 安道全: 병산서원 재유사(1631년 외 3회) 李克溫: 병산서원 재유사(1623년) 李廷吉: 병산서원 재유사(1633년 외 3회) 李榮業: 병산서원 재유사(1638년 외 3회) 南之斗: 병산서원 재유사(1627년 외 9회) 鄭維城: 병산서원 재유사(1627년) 鄭維袞: 병산서원 재유사(1636년)
함창	10	朴叔廷世, 申以遠, 申碩慶, 申碩祖, 申碩弼, 申煥, 李莫, 鄭基武, 秦克恬, 蔡之溟	申碩祖·申碩弼: 신석번 형제(父 諱)

33 김학수(2007), 앞의 논문, 214쪽, 218~223쪽.

34 金垿, 『溪巖日錄』 권5, 8월 26일 “晴. 尙州道南書院. 將以九月初六. 配享西厓. 通文列邑.”; 『尋院錄』 “辛未九月初六日 西厓先生奉安時參與 八十三” 심원록에는 83인이라고 하나 인명수를 세어보면 85명이다. 『계암일록』 권5, 8월 29일 기사에 의하면, 金光岳, 許蓉, 琴好謙, 琴是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원록』에는 김광악, 금시성은 빠져 있어 추가하였다.

지역	수	이름	기타
예천	7	權垠, 權克(言+尢), 權國柱, 李昌運, 李經南, 李均, 李萬兼	權國柱: 道南書院의 西厓 柳成龍 선생 位版의 글씨를 씌(李尙彦, 『城西集』, 『容巖權公行狀』)
영주	6	權堉, 金汝燾, 金汝赫, 金汝渠, 申以魯, 朴安復	權堉: 정경세 門, 아들 權斗紀 갑암 門 朴安復: 아들을 퇴계 문인 南夢鰲에게 수학하게 함(『響山集』 권10 記 「四桂堂記」)
예안	5	許蓉, 琴好謙, 金礪, 金光岳, 琴是成	許蓉·琴是成: 도산서원 원생 琴好謙: 1665년 도산서원 上有司 金光岳: 1648년 도산서원 上有司 정구·장현광 門 金礪: 1658·59년 도산서원 上有司
군위	5	孫興仁, 孫光世, 李(栢+心)吉, 李昌吉, 洪旭	孫興仁: 柳珍 門
용궁	3	權估, 李長榮, 全泳	
의성	3	權守經, 丁俞, 李文遵	權守經: 정구 門 丁俞: 장현광 門
비안	3	卞壁, 張翊, 張乃綱	
김산	3	姜濼, 呂激, 呂沂	
성주	3	金以潤, 李道長, 宋世弼	李道長: 이운우 子, 장현광 門 宋世弼: 장현광 門, 張應一 妻姪
선산	3	金是城, 朴順慶, 李英馥	
봉화	2	邊銓, 權和重	
풍기	2	金是恭, 黃有纘	
지례	1	金鉉	
문경	1	李瑛	
인동	1	金慶長	장현광 門, 旅門十賢
개령	1	李楸	
합천	1	曹挺生	조우인[서애門]·조희인[우복門]의 종질, 정인홍·장현광 門
총	87		

봉안식 참석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총 19개 지역이 확인된다. 참여 순으로 보면 안동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합창 10명, 예천 7명, 영주 6명, 예안 5명 순이다. 안동 참석자들은 대부분 류성룡의 후손이거나 병산서원을 출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예안과 비교했을 때도 참여 수가 확연히 차이나다. 이와 관련하여 예안 출신 金垞의 『계암일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도남서원에 차출되어 가는 선비는, 우리 고을은 金光岳·許蓉·琴好謙·琴是成 등 네 사람이었는데, 원장이 齋任과 함께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안동은 여강서원 원장 李煥이 40인을 차출하였는데, 반드시 저렇게 많이 보낸 다음이라야 마음에 유쾌하며 공론에 시원한 것인가? 이환이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았다.<sup>35</sup>

서애·학봉의 여강서원 합향 때부터 비판적이던 예안사람들은 이때 노수신의 승향까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반대가 많았다.<sup>36</sup> 이에 도산서원 측에서는 김광악을 포함하여 4명만 참석시켰다. 이중 허용은 정경세 사후 도산서원 원생으로서 제문을 지을 정도로 각별함이 있었다.<sup>37</sup> 반면 여강서원에서는 40명을 차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심원록』에는 27명만 확인되는데, 이 기사대로 40명이 방문했다면, 전체 참석자 중 안동 사람만 약 46%에 달하게 된다.

함창에서는 평산신씨의 참여가 높은 편으로 이중 申碩祖·申碩弼은 신석번의 형제들이다. 신석번은 『도남서원창설계안』에서도 확인되며 1670년(현종 11) 청액소를 기획할 정도로 서원 운영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15세에 申景翼에게 출계하였는데, 석조·석필은 출계하기 전 생부 謹의 아들로 혈연관계에 의한 참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성주·선산·의성·인동 등에서 장현광 문인들의 참석이다. 상주가 이들 지역과 가깝기도 하거니와 이는 서애계와 여현계의 연고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류성룡의 부친 류중영과 형 류운룡은 각각 장현광의 생질 노경필·노경임을 외손서·사위로 맞으며 장현광과는 간접적으로 혼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 류진과 문인 金應祖가 장현광의 문인이 되면서 학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서애계는 『서애집』 발문을 장현광에게 부탁했으며 병산서원 尊德祠의 복향 문제

35 金垓, 『계암일록』 권5, 8월 29일.

36 김학수(2011), 앞의 논문, 87쪽.

37 鄭經世, 『愚伏集』 別集 권12, 付祿 祭文, 「祭文 禮安陶山書院齋生許蓉」.

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sup>38</sup> 또 장현광과 정경세는 1627년(인조 4) 정묘호란 당시 경상좌·우도호소사를 역임하면서 직접 만나 호소사 막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던 인연도 있었다.<sup>39</sup>

한편 조정생은 합천의 대표적인 남명학과 가문의 일원이었다. 이 가계는 본래 창녕과 상주에 살다가 曹夢吉 대에 합천으로 이거하였다.<sup>40</sup> 조정생의 조부 조몽길은 남명 조식과 교유했던 신계성의 사위였고, 부친 曹應仁은 정인홍의 문인이자 고령의 대북 가문인 고령박씨 박정완의 장인이었다. 조정생 역시 박정완의 형 박정번의 딸과 결혼했는데, 박정번의 묘비명을 정인홍이 지어준 바 있다.<sup>41</sup>

다만 부친 조용인은 대북의 전횡에 선을 긋고<sup>42</sup> 매형 金聃壽를 통해 한강의 문인이 되었는데, 김담수의 아들 김정견은 훗날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향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조용인은 아들 조정생을 여현 문하에서 수학하도록 했다.<sup>43</sup> 조정생의 참여는 상주에 세거하던 종조부 曹夢臣·曹夢祥의 후손들이 서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상술한 바 김정견 가문과의 혼반 등을 고려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후 도남서원은 전식의 주도 하에 문인 김정견[도남원장], 韓克述, 鄭永世 등이 정경세의 추배를 공론화하였다. 이는 이황→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 학통을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1635년 12월 11일 정경세의 추배

38 김학수(2007), 앞의 논문, 158~161쪽.

39 우인수(2015),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35쪽.

40 조몽길의 동생 曹夢說·夢臣·夢祥계열은 상주에 세거하였다. 이중 조몽신의 아들 曹希仁이 정경세의 문인이다.

41 鄭仁弘, 『來庵集』 권13, 碑文, 「主簿朴君墓誌銘」.

42 鄭蘊, 『桐溪續集』 권2, 墓碣, 「陶村曹公墓碣銘」.

43 『旅軒先生及門諸賢錄』, 「曹挺生」; 김학수(2007), 앞의 학위논문, 156쪽.

44 曹夢說-復仁-佑漢[창설계인]-夏英[1689년 齋田]

曹夢臣-友仁[서애 門]-拔孺[창설계인]-時孟·時大·時虎[창설계인]

-希仁[우복 門, 창설계인]-挺華[창설계인]/挺珣[창설계인]-時大[창설계인]

曹夢祥-克仁-挺建-時望[창설계인]-夏徵[장자 1682 齋田·夏龜[3子 1694 齋田]

가 이루어졌고, 『심원록』과 『계암일록』을 통해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635년 정경세 위판 봉안식 참석자 명단

지역	수	이름	기타
함창	7	李必鳴, 李覺民, 趙唯一, 李馨, 李長馨, 洪以海, 南星祐	李覺民: 정경세 사후 祭文 지음. 趙唯一: 趙翼[여현·윤근수 門] 종질 <sup>45</sup>
예천	5	李瑞翼, 宋大修, 李激, 朴應衡, 朴王+變	朴應衡: 박정변(내암·한강 門) 손자
영주	3	金汝樑, 閔東鳴, *權堽	權堽: 홍여하·金啓光·鄭弼 교유 <sup>46</sup>
안동	2	李峽, 南磁	李峽: 이항 증질손 <sup>47</sup> , 우복 門 南磁: 여현·우복 門 <sup>48</sup>
용궁	2	安碩徵, 文以博, *權搏	權搏: 申楫 처남
인동	2	柳碩男, 張是玠	柳碩男: 여현 門
대구	2	都眞行, 崔節南	都眞行: 동생 都眞徵 한강·여현 門
청송	2	李之任, *申楫	申楫: 우복·한강·여현 門
영해	1	權璟	
풍기	1	秦柱國	
군위	1	孫興仁	南溪儒生 <sup>49</sup>
비안	1	金鈺	
의성	1	金尙玘	형 金尙瑗이 여현 門
김산	1	金尙仁	
개령	1	李尙規	
안음	1	姜尙胤	姜渭龍[강익 조카] 후손, 鄭蘊 종고모부
함양	1	姜紘	남명 문인 강익 손자, 1634년 남계서원에 강익 별묘에 제향
경주	1	金元忠	
경산	1	徐愷	父 徐思選: 여현 門
京	1	俞若曾	우복 門
미상	3	李後元, *郭龍伯,	
합계	40		

\* 『계암일록』에만 기록된 인물

45 金垓, 『계암일록』 권5, 丁卯 12월 9일 “夜僕携來, 仍聞佞婿定婚趙家. 以仲明兄言也, 趙唯一開城留守趙翼從姪也. 翼不滿朱子四書註, 自爲改之. 時人之骨也, 惟

표를 보면, 4년 전 류성룡의 추배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에 있어 절반가량 차이가 나고, 류성룡 추배 시 가장 적극적으로 안동 사림은 단 두 명만이 참석하였다. 또 반대 여론이 있었던 예안에서도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참석해주었지만 이번에는 한명도 오지 않았다. 『계암일록』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남서원에서 奠刑書 배향을 지난 11일에 거행하였다. 선생(이황)의 廟에 참여하는 것이 곧 어떠한 자리인데 이러한 일을 하는가. 李峽가 초헌을 하고, 申楫이 아헌을, 郭龍伯이 종헌을 하였고, 權搏이 집례를 맡았다. 고유문은 이례가 지었고, 제문은 전식(全湜)이 지었다. 모인 사람은 겨우 100명으로, 안동에서는 오직 남자(南磁)만 갔고, 영천에서는 오직 권후(權垆)만 갔는데, 모두 개인적으로 간 것이다.

이 일은 애초에 韓克述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중간에는 전적으로 흥호가 중론을 물리치고 한 것에 말미암은 것이다. 전식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고, 정 판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견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상주의 여론 또한 매우 한결같지 않았으니, 예를 들면 趙判事 무리의 경우는 애초부터 매우 불가하다고 했다. 김효중 역시 크게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매우 힘써서 논의했으므로, 金時翼 무리의 말이 더욱 끊이지 않았다. ...<sup>50</sup>

정경세의 문인 중심으로 추배가 이루어지면서 향내 원로였던 趙淸이 크게 노하였고, 이 외에도 분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풍문에는 위차도

一以是勢 亦擬官望 仲明兄相切而爲是事也。”

46 金宗佺, 『書巢集』 권5, 墓誌銘, 「聽悟堂權公壙誌」“... 與洪木齋 鄭愚川 金鳩齋諸公 徜徉田園 觴永自娛 鳩齋即公之玉潤 木翁亦年輩稍間而一以執友處之...”

47 趙綱, 『龍洲遺稿』 권23, 東槎錄, 「次李蔚山 峽 贈韻 是日與李看退翁, 高峯理氣書 李君退翁曾姪孫」

48 李珣亨, 『廣瀨文集』 권10, 墓碣銘, 「成均生員无悶堂南公墓碣銘」, “... 時從旅軒 愚伏諸賢以求磨礱...”

49 柳軫, 『修巖先生年譜』 권2, 附錄, 「祭文 南溪儒生孫興仁等」; 군위의 남계서원은 류성룡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627년(인조 4) 창건되었다.

50 金垞, 『계암일록』 권7, 乙亥年, 12월 19일.

류성룡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류성룡을 出座시키려 한다는 의견까지 있어 류진이 저지시켰다고 한다.<sup>51</sup> 향내 공론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洪鏞 등은 추배 통문에 강압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였고, 통문 내용에는 “우복 선생은 퇴도와 서애 두 선생의 緒業을 이었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소식이 예안에까지 전해지면서 비난이 일어났다.<sup>52</sup>

당시 초헌관은 안동 출신 이래가 맡았고, 청송 출신 신즙은 아헌관, 곽용백은 종헌관, 권박이 집례를 맡았다. 위 인용문에도 나오듯이 이들은 향론을 대표하여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이래·신즙은 정경세의 문인이었고, 권박은 신즙의 처남이다. 특히 신즙은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의 회퇴변척으로 대립하던 정경세가 사관에서 삭제되자 변무소를 작성할 정도로 존송의식이 깊었다. 거기다 추배를 주도했던 홍호와는 여강서원에서 함께 동문수학한 인연도 있었고, 전식과도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교분이 두터웠다.<sup>53</sup> 영주 출신 권후 역시 정경세 문인들과의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인으로 서울 출신 俞若曾과 예천 출신 박응형도 참석하였다. 박응형은 본래 고령 출신으로 조부가 앞서 기술한 박정변이며 조정생이 고모부에 해당한다. 그는 1619년(광해군 11) 부친 朴昌先의 유언에 따라 ‘絕鄆’[합천 정인홍과 절교하고 외조부 李光胤이 있던 예천으로 이주하였다. 인조반정이 있던 1623년 鄭榮後의 딸과 결혼했는데, 정영후는 동생 鄭榮邦과 함께 정경세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이듬해 겨울 정경세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sup>54</sup>

한편 류성룡 추배에 이어 본 행사에도 일부 여헌학단의 참여가 확인된다. 인동에서는 문인 柳碩男이, 대구·경산·의성에서는 문인 都眞徵, 徐思選, 金

51 金垞, 『계암일록』 권6, 乙亥年, 10월 1일.

52 金垞, 『계암일록』 권7, 乙亥年, 11월 20일.

53 申楫, 『河陰集』 권8, 墓誌, 「先妣孺人權氏壙記」; 권4, 疏, 「擬愚伏先生伸冤疏辛亥」; 권5, 書, 「與金沙西」(3), 「答洪叔京」(6).

54 朴應衡, 『南阜先生文集』 「年譜」.

尙堧의 가족이 참여하였다. 특히 안동김씨 金尙玘의 가문은 이항→류성룡의 학맥을 근간으로 한강·여현으로까지 사승관계를 확대해간 경우이다. 조부 金士元은 퇴계의 문인이었고, 종조부 金士貞이 서애문인인 점에서 서애계와 학문·혈연적 유대가 밀접하였고, 이후 김상빈의 형 金尙堧은 장현광의 문인이 되었다. 이 가문은 1689년(숙종 15) 류성룡·김성일·장현광의 병계서원 입향을 주도하였으며 의성 내 여현학단의 대표가문인 아주신씨 회당가문과도 척연을 맺고 있었다.<sup>55</sup> 여현의 문인들은 다음 해인 1636년(인조 16)에도 도남서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장현광이 지중추부사로 召命을 받고 상경하던 중 함창 부근에서 병이 나 되돌아올 무렵이었다.<sup>56</sup> 10여 명이 서원을 찾았고, 이 중에는 旌門十賢에 속했던 鄭克後, 金慶長도 확인된다.

이후 1660년(현종 1) 도남서원은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을 새로이 중창하게 된다. 서원 측은 원장, 유사를 중심으로 회를 결성하고 董役·瓦役·山役有司 및 각 면별 별유사를 차정, 기금을 각출했으며 이후 道內로까지 확장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이때 부조 요청 지역은 山蔭·義城·豊基·善山·幽谷·省峴·永川·金山·晉州·淸道·統營·慈仁·宜寧·寧山·金海 등이었다.<sup>57</sup> 지역을 보면, 예안·안동 등은 빠져 있고 의성·영천·자인과 우도 지역이 위주였다. 이 중 우도 남명학과 권에서는 산음만 부조에 응해 木10定, 白紙5卷을 지원해 주었다.<sup>58</sup>

이후 도남서원은 청액활동에 주력하여 1676년(숙종 2) 11월 李在憲을 소

55 김학수(2007), 앞의 논문, 130쪽.

56 張顯光, 『旌軒先生續集』 권9, 附錄, 『拜門錄 門人申悅道』; 『심원록』에는 당시 동행한 문인 중 鄭四勿, 鄭克後, 李允元, 金慶長, 鄭陞, 鄭塗, 鄭墜, 申澣, 朴俠, 張宗禧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57 『道南書院事實下』, 「十五邑諺助書」(국사편찬위원회(1999), 『朝鮮稱許代嶺南書院資料』); 김형수(2005), 앞의 논문, 139~142쪽, 이때 산음·의성·풍기·선산·유곡·성현·영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조에 응하지 않았다.

58 당시 산음에는 1606년(선조 39) 오건을 제향하는 西溪書院이 건립되어 있었다. 오건은 퇴계와 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물로 산음의 부조는 아마도 퇴계 학파라는 학문적 동질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동·예안 지역이 누락된 것은 정경세 추배 당시 비협조적이었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두로 2차 청액소를 올렸으며 다음 달 다시 高世章 등을 중심으로 3차 청액소를 올렸다. 당시는 갑인예송으로 남인집권기였던 만큼 영의정 허적이 경연에서 직접 청함으로써 사액을 받게 된다.<sup>59</sup> 그리고 18세기로 접어들면 윤지술 탄핵소를 도남서원에서 준비하고,<sup>60</sup> 1723년(경종 3) 권상일, 1729년(영조 5) 이만부가 원장으로 취임하여 강화활동을 펼치며 상주권 남인계의 首院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 Ⅲ. 18세기 흥암서원의 인적구성과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

#### 1. 18세기 흥암서원의 창건과 인적구성

17세기 중후반부터 영남지역에는 집권세력에 포섭된 서인, 또는 노론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주 일대는 지리적 특성상 호서와 인접해 있어 18세기 이전부터 기호학과 내지 사족과의 교류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는 牛粟의 제자 成灑 가문의 이주와 정경세가 송준길을 사위로 맞은 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61</sup> 이후 상주 지역은 신석번의 서인계 행보를 시작으로, 인천채씨 蔡河徵, 창녕성씨 成虎英·成晚徵 등이 서인 공문을 주도해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1650년(효종 원년) 柳稷 등이 올린 우울종사 반대소나 1666년(현종 7) 柳世哲 등의 복제소에 반대소를 올리며<sup>62</sup>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

59 『서원등록』, 숙종 2년 11월 5일 「도남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건」; 12월 19일 「도남서원 사액 건」.

60 이재현(2014),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대구사학』 117, 대구사학회, 16쪽.

61 이수환(2016), 앞의 논문, 67쪽.

62 김학수(2007), 앞의 학위논문, 279쪽; 『현종실록』, 현종 7년 6월 29일 “상주 유생 成震昇 등이 상소하였다. 예를 논한다는 핑계로 儒賢을 무함한 유세철의 죄

다 집권노론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특히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내 노론세력은 더욱 확대되어갔고, 집권노론은 자파세력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원건립 및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홍암서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1702년(숙종 28) 건립되었다. 제향자는 정경세의 사위였던 송준길로 당시의 건립 명분은 ‘송준길의 처향으로 상주를 왕대한지 여러 해가 됐으며 학풍을 진작시킨 집’이었다.<sup>63</sup>

홍암서원은 창건 논의 단계부터 창녕성씨 成晩徵의 역할이 컸다. 그의 조부 成震昇은 도남서원 원장을 지낸 성진병과 사촌지간이며 부친 成虎英은 서인계였던 李東野의 딸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성만징이다. 그는 권상하의 문인으로 이미 1691년(숙종 17) 송시열의 道峯書院 입학과 관련하여 영남 내 노론의 공론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성만징은 홍암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권상하와 함께 제반 사항을 협의했고, 완공 직후 권상하에게 원장직을 위촉하는 한편 각종 예식 문자와 찬술을 분담함으로써 호서·영남 간의 연대를 표시하였다.<sup>64</sup>

홍암서원은 1705년(숙종 31) 성만징의 재종숙인 成虎兌를 중심으로 청액소가 올라갔고, 당시 서원 첩설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액을 받았다.<sup>65</sup> 도남서원이 3차에 걸쳐 청액소를 올린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였다. 그만큼 집권 노론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주에는 1708년(숙종 34) 김상용·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산서원이 건립되고, 1711년(숙종 37) 성람·신석번·신석형·趙振·成汝樞·김삼락을 제향하는 운계서원이 건립됨으로써 상주 서인계 인사들은 홍암·서산·운계서원을 운영하며 세력을 결집해갔다. 특히 운계서원은 권상하가 직접 춘추향사의 축문까

를 다스리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이미 館學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63 『서원등록』, 숙종 31년 7월 11일, 「편액의 청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64 김학수(2007), 앞의 논문, 292쪽.

65 『서원등록』, 숙종 31년 7월 11일, 「편액의 청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宋浚吉, 『同春堂續集』 권10, 附錄5, 「年譜」.

지 지어주었다.<sup>66</sup>

한편 성만징은 흥암서원을 華陽書院에 버금가는 서원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이면에는 상주 내 정치적 기반과 호서·영남 간의 노론계 제휴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sup>67</sup> 이는 권상하·李宜顯·俞拓基·宋明欽·權震應·金亮行·金履安·李敏輔·沈煥之·李彙靖·宋來熙 등 역대 원장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sup>68</sup> 남인계 서원이 일향 내 인사로 원장을 선출했다면, 서인계 서원은 이와 같이 중앙관료를 원장으로 추대했으며 겸임도 일반화 되어있었다. 이는 서원의 제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서원 측의 이해관계와 서원을 통해 자파세력 확대를 꾀했던 중앙관료의 상호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sup>69</sup>

흥암서원은 18세기 『院任錄』이 없어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할 수 없지만, 『院錄』에 서압된 명단을 통해 원임체제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원장·掌議·有司 체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음 <표 4>를 보면 흥암서원의 경우 원장 외에 도유사, 장의, 유사, 재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기와 서원 상황에 따라 변용하여 사용했을 뿐 기본 틀은 큰 변동이 없었다.<sup>70</sup> 그러다 18세기 중후반부터는 도유사 대신 유사·장의 체제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19세기 『임원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유사 중 일유사는 현직관료가 담당하였고, 이유사는 서원의 실질적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향내 명망 있는 인사로 선발하였다. 이는 서인계 서원이 영남 남인의 견제를 이겨내고 지역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서원 운영에 있어 현직관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sup>71</sup>

66 권尙夏, 『寒水齋集』 권23, 祝文, 「雲溪書院 百源申公春秋享祝文」.

67 김학수(2007), 앞의 학위논문, 293쪽.

68 『華陽誌』 권5, 書院事實(本院院長) ; 『興巖書院事實錄』, 院長先生案.

69 이수환(2001), 앞의 책, 120쪽.

70 이수환(2001), 앞의 책, 118~127쪽 ; 윤희면(2004), 앞의 책, 188~193쪽 참고.

71 이수환, 『서원향사: 흥암서원·대조사』 국립무형유산원, 2014.

〈표 4〉 18세기 흥암서원 인적 구성

연도	都宥司	掌議	有司, 齋任	公事院	『원록』 내 원생 수		비고 (원생 중 새로 추가된 성씨는 인명 표기)
					수	성씨	
1704년 9월 19일	成	成, 金	李		15	金, 禹, 成, 具, 黃	
1706년 3월 8일	金	成, 金	金, 成		6	金	金必干: 1708년 서산서원 창건 발의
1706년 9월 12일	成	金, 成	成		5	文, 俞	
1707년 9월 18일	成	成, 金	成, 李		15	成, 禹, 權, 黃, 俞, 朴, 禹, 李, 金	
1709년 9월 10일	成	成, 李	成, 成		8	(別薦) 蔡, 李, 成, 南	
1712년 9월 7일	成	成, 金	成, 成		19	俞, 成, 黃, 金, 申, 趙, 禹, 朴	
1715년 3월 1일	成	成	李, 成	李	13	金, 成, 李, 俞	
1715년 9월 5일	成	成	俞, 成	成, 李	5	(別薦) 蔡, 南	
1716년 3월 6일	金	成	禹, 蔡	金, 申	58	李, 蔡, 金, 申, 趙, 黃	11월 숙종 어필면역 하사
1717년 3월 11일	成	成	黃, 金	申	20	蔡, 金, 李, 黃, 申, 趙	
1717년 5월 18일 疏會修錄	成	成, 申		*疏廳 公事院 申, 曹	7	(別薦) 宋 송준길 후손	1718년 11월 8일 성덕정 疏頭 양송문묘중사
1717년 9월 5일	成	成	李, 申	申	11	南, 尹, 李, 趙, 成, 金	尹商霖
1721년 3월 6일	成	申	尹, 李	成, 俞	34	文, 李, 申, 俞, 趙, 蔡, 成, 南, 禹	
1722년 3월 11일	金	成	李, 金		3	(別錄) 蔡, 韓, 李	韓國觀
1722년 5월 10일	金	成	李, 金		3	(別薦) 金, 申	
1723년 3월 8일	成	趙	成, 金	申, 趙	29	申, 文, 蔡, 李, 成, 金, 南, 禹, 黃, 尹, 柳	柳翬齡, 柳祥采
1724년 3월 3일	南	申	成, 李		3	(別薦) 趙, 李	
1725년 3월 8일	南	申	李, 成		5	(別薦) 李, 韓, 金, 具, 安	3월 서인계 상주목사 趙正萬 이름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삭제하여 항의 安行敬
1727년 3월 9일	成	成	成, 柳	申, 成	22	文, 成, 宋, 尹, 申, 禹, 李, 黃, 金, 南	
1729년 3월 3일	成	成	申, 成	金	22	成, 南, 金, 黃, 申, 柳	

1732년 3월 10일	成	成	南, 金		5	(別薦) 趙, 權, 曹	曹時任, 曹希仁 (우복 門)의 손자 權鉉·權鎔·權鏞
1770년					97	(別薦) 南, 李, 成, 金, 朴, 蔡, 申, 黃, 趙, 安, 鄭, 俞, 柳, 禹, 河, 宋, 孟, 盧	鄭愼東, 河尙洪, 孟鎮泰, 盧會元
1772년 3월	成	安	成, 具		50	尹, 成, 申, 金, 李, 柳, 權, 鄭, 趙, 孫, 安, 丘, 黃, 俞, 河, 禹, 朴	孫邦振, 丘應斗
1783년 9월	成	成	金, 金		4	(別薦) 金, 鄭, 李	
1795년 1월 10일	成			金	1	(別薦) 宋	

원임을 구성하는 성씨들은 金·成·申·蔡氏 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관은 원생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로 성암 후손과 신석번·채하징 가문, 그리고 이들과 교유·혼반으로 연결되어 있던 청도김씨 김삼락의 후손<sup>72</sup>들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1717년(숙종 43) 5월 18일 宋炳翼[상주목사1714~1716, 손자, 宋堯卿·宋堯臣·宋堯佐·宋堯和·宋堯輔(중손)·宋思欽(堯臣 子), 宋必燁 등 송준길의 후손이 입록된 것이다. 당시 양송문묘종사를 위한 疏會가 흥암 서원에서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 공사원으로는 申·趙, 회원으로는 李·金·申·蔡[2명]이 서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718년(숙종 44) 11월 8일 成德徽을 소두로 하는 양송문묘소가 올라갔다.<sup>73</sup>

한편 원생 중 別薦으로 새롭게 들어간 성씨로는 尹·韓·柳·安·曹·權·孫·丘가 있었다. 일부 확인되는 인물로, 韓國觀은 1725년(영조 1) 송시열을 제향하는 누암서원의 사액이 철회되자 회복을 청하는 상소에 동참한 바 있었고, 이듬 해 충청도 유생 鄭思相을 소두로 하는 양송문묘종사소에도 참여하였다. 柳翽翽·安行敬 역시 여러 차례 양송 문묘종사소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sup>74</sup>

72 이수환(2016), 앞의 논문, 70쪽.

73 『숙종실록』, 숙종44년 11월 8일.

74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월 28일, 영조 2년 3월 26일·7월 27일, 영조 11년 12

창녕조씨 曹時任은 정경세 문인 曹希仁의 손자였다. 이 가문은 17세기 도남서원 원임을 역임했던 가문으로, 18세기에도 曹友仁의 4대손 曹亨稷과 曹克仁의 4대손 曹景沆·曹景湜가 재임을 맡고 있었다. 조시임이 서인계로 전향한 계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산서원 건립을 발의했던 김천일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으로 보아 혼반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양하씨 河尙洪의 가계도 어머니가 평산신씨 申厚儉의 딸이었고, 조카 河必星은 金道淳의 딸과 결혼했다. 김도순은 김상용의 7대손으로 상주에는 이미 김상용·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산서원이 건립된 상태였다. 서산서원의 건립은 1708년 홍암서원 원생이기도 했던 청도김씨 金必千의 발의로 건립되었다.<sup>75</sup> 하상홍의 사례처럼 『원록』에는 홍암·서산서원의 운영권을 주도하던 창녕성·평산신·청도김씨 등의 성씨들과 혼반을 매개로 입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70년(영조 46) 입록된 孟鎭泰는 훗날 1792년(정조 16) 상주 지역 임진왜란 삼충신 尹暹·李慶流·朴篋와 의병 金俊臣의 사당건립을 청하는 상소의 소두를 맡게 된다. 당시 상주에는 충렬사가 있었으나 앞서 상기한 삼충신이 당색 때문에 제외되어<sup>76</sup> 새로이 龔淵忠烈祠를 창건한 바 있었다. 그러나 1740년(영조 16) 원사 휘철로 철거당하면서 1784년(정조 8) 복설 의논이 일어나 6년 뒤 향교·홍암·서산·운계서원<sup>77</sup>에서 각출하여 제단을 만들었고, 이후 1792년(정조 16) 조정에서는 삼충신을 충렬사에 합향하라는 명을 내렸다. 여기에 김준신이 빠지면서 그의 후손 金思玄, 성국열, 성재집 등이 주도하고 맹진태가 소두로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sup>78</sup>

월 11일·18일, 영조 12년 8월 20일, 영조 14년 3월 16일, 영조 17년 8월 2일, 영조 20년 10월 23일.

75 김학수(2007), 앞의 논문, 303쪽.

76 청대 권상일이 충렬사에서 잤다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충렬사는 남인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일기』 권5, 계묘년(1723) 9월 2일.

77 상주의 서인계 成灑·申碩蕃·趙振·申碩亨·成汝樞·金三樂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711년 건립되었다.

이들은 사당 건립에 이어 서원으로의 승원과 사액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는 이미 금령이 내려져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sup>79</sup> 다만 이후 12월 24일 제단에 제사 지내는 정성을 높이 사 '忠臣義士壇'이라는 이름과 비를 세워 기념하게 했다.<sup>80</sup> 이처럼 흥암서원 『원록』에 입록된 가문들은 노론계 공론기구였던 서산서원·운계서원·충의단 등과도 연결되어 서로 결집하고 있었다.

## 2. 18세기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

상주의 노론계 인사들이 흥암·서산·운계서원을 통해 세력을 결집해가자 도남서원 역시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같은 당론을 가졌던 도남·옥성·근암·옥동서원과의 연대를 통해 남인계 유생들의 공론을 모으며 서인세력을 견제해 갔다. 일례로 흥암서원이 창건된 1702년 근암서원의 경우 김홍민·홍여하 등 남인계 학자 관료들을 추향했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옥성서원에서 이루어졌다.<sup>81</sup> 그리고 같은 해 근암서원에서 개최된 都會에서 전식의 백옥동 영당 합향과 승원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정치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어져 1721년(경종 원년) 도남서원에서 윤지술 탄핵 상소를 준비했다가 疏會를 근암서원으로 옮겨 진행한 바 있다.<sup>82</sup>

한편 도남서원에는 1701년~1747년까지 원임 명단이 『任員錄』에 기록되어 있어 18세기 전반 서원의 주도세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83</sup>

78 채광수(2019),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6쪽.

79 『정조실록』 정조 16년 12월 14일.

80 『정조실록』 정조 16년 12월 24일.

81 權相一, 『淸臺日記』, 壬午 2월 26일.

8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수, 앞의 논문, 149쪽 참고.

〈표 5〉 18세기 도남서원 원장 명단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 용	비고
1701	金壽聃	순천	前縣監	· 趙德鄰 「高靈縣監金公墓碣銘」 · 조부 金喜長: 居 인동, 장현광 門 · 1694년 모친상을 치른 뒤 상주로 이거	
1701	金楷	안동	生員	· 金光灑 子, 안동 풍산에서 상주 大道村, 近壘村으로 이거 · 「近壘書院常享祝文」 작성 · 권상일 「挽負喧堂金上舍丈 楷」· 「負喧堂金公墓碣銘 並叙」 작성 · 정종로 「成均生員負喧堂金公行狀」 작성	
1702	申弼成	평산	前別檢	· 정경세 門 申尙哲 증손 · 孫萬雄 사후, 「輓詞 別檢 申弼成」 지음	
1704	洪相民	부림	前主簿	· 洪汝河 子 · 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洪相民」)	
1705	李葆英	신평	進士		
1706	成世璜	창녕	進士	· 李東標 사후 輓詞 지음(『懶隱先生續集附錄』) · 권두인과 교유 <sup>84</sup> · 成女義 증손	
1708	金時泰	청도	生員	· 우복 문인 金繼美 손자, 흥여하 門 · 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道南儒生金時泰等」(『野村集』 권6, 附錄)	
1708	柳經可	풍산	前參奉	· 柳千之 子 · 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柳經可」)	
1710	申弼成	평산	前別檢	· 재임	
1711	孫景錫	경주	前縣監	· 孫萬雄 子	
1712	金時泰	청도	生員	· 재임	
1713	申弼成	평산	前別檢	· 재임	
-	蔡獻徵	인천	前府使	· 이현일 門, 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蔡獻徵」)	
1717	洪道達	남양	前縣令	· 張頊 壻, 장진의 묘갈명을 정종로가 지음. · 孫萬雄 사후 「輓詞 典籍 洪道達」(『野村集』 권6, 附錄)	
1719	洪相民	부림	前主簿	· 재임	

83 이 표는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490~491쪽의 〈표 2〉를 참고, 관련내용을 보완함.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 용	비고
1721	黃翼再	장수	前府使	· 황희 10대손, 황익재 현손 黃錫老의 장인 정종로 이상정의 스승	
1721	李增祿	홍양	前縣監	· 서에 門 李堧의 현손 · 李堧, 『月澗集』, 『月澗先生文集識 李增祿』 · 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縣監 李增祿」(『野村集』 권6, 附錄)	
1722	洪道達	남양	前縣令	· 재임	
1723	高師聖	개성	生員	· 高仁繼 증손 · 갈암·밀암 門 李光庭과 교유 <sup>85</sup>	
1723	權相一	안동	前佐郎	· 근암·도남서원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이만부를 강장으로 초빙하여 강회 개최 · 도산·택천서원의 원장 역임	
1725	黃浚	장수	正字	· 외조부 權曄 道남서원 우복 추배시 집례 · 權榘 문인	
1725	成德徵	창녕	進士	· 노론, 성여송 증손, 거제도에 송시열 제향 서원의 시액 요청(『서원등록』, 숙종32년 9월 9일)	노론계
1726	南塾	의령	生員	· 노론, 1726년 3월 26일 양송문묘중사소 참여 · 南躡·南塾 형제, 부친 남극표가 成震長 壻	
1726	金必大	청도	生員	· 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 · 성만징 사후 제문 『秋潭集』 권8, 附錄, 祭文 · 권상하 門	
1727	成爾鴻	창녕	前副 繼	· 노론, 성여백 현손, 성만징 子, 권상하 門	
1727	李增華	홍양	進士	· 이준 후손 · 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縣監 李增華」(『野村集』 권6, 附錄)	남인계
1728	李世瑗	광주	生員	· 갈암 門, 거주지 칠곡, 石潭 현손, 한강·여헌 門 道長의 증손, 장인 洪汝河	
1729	金在鎰	선산	生員	· 李麟至 소두 양송문묘중사 반대소 참여(영조12년 3월 12일)	
1729	李萬敷	연안	前參奉	· 류진 孫淸, 갈암 門	
1730	李增華	홍양	進士	· 재임	
1732	黃滿	장수	進士		

84 權斗寅, 『荷塘集』 권1, 詩, 「別成周瑞世壻」.

85 李光庭, 『訥隱集』 권8, 記, 「漢江同舟錄」.

86 權斗寅, 『荷塘集』 권1, 詩, 「携從弟天章粹參及李以達與竹溪倅蔡仲美 遊浮石寺 同遊者 李以時 朴翊周 天球 諸人也, 次翊周韻」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 용	비고
1732	趙重台	함안	生員	· 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 · 양송문묘중사소 동참(영조2년 3월 26일 외) · 상주 서산서원 청액소 동참(영조2년 3월 20일)	노론계
1732	成德徵	창녕	進士	· 재임	
1735	李挺奎	벽진	進士	· 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 · 상주 서산서원 청액소 동참(영조2년 3월 20일) · 양송문묘중사소 동참(영조11년 12월 18일)	남인계
1735	李麟至	홍양	生員	· 갈암 문, 양송문묘중사 반대소 소두(영조12년 3월 12일)	
1736	南躡	의령	前正郎	· 양송문묘중사소 동참(영조2년 3월 26일 외) · 尹鳳九가 「兵曹正郎南公 躡 墓誌銘」 작성	노론계
1737	成德徵	창녕	進士	· 재임	
1738	成爾漢	창녕	前參奉	· 노론, 성이홍의 사촌 · 閔遇洙 『貞菴集』, 「成進士 爾漢 贈詩 次韻以答」 · 맹진태 소두 삼충신 사우 건립상소 동참	
1743	姜櫟	진주	進士	· 父 姜碩經	
1743	金堧	순천	前縣監	· 父 金壽聃	
1744	李麟至	홍양	生員	· 재임	
1745	鄭胄源	진양	前參奉	· 우복 증손 鄭錫喬 子, 정종로 조부	
1746	李知聖	전주	前縣監	· 父 李以達은 권두인과 교류 <sup>86</sup>	
1746	金國采	의성	生員	· 金宇宏 7대손 · 김우평의 행장을 권상일에게 부탁 · 李麟至 소두 양송문묘중사 반대소 동참(영조12년 3월 12일)	
1747	李知聖	전주	前縣監	· 재임	

18세기 전반 도남서원의 원장으로는 총 45명[재임 포함]이 확인되며 성관 별로는 창녕성씨 6회, 홍양이씨 5회, 장수황·평산신·청도김씨 각 3회, 순천 김·부림홍·남양홍·의령남·전주이씨 각 2회, 안동김·신평이·풍산류·경주손·인천채·개성고·안동권·광주이·선산김·연안이·함안조·벽진이·진주강·진양 정·의성김씨 각1회 순이다. 대체로 남인계 성향의 인사들이 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나 1725년부터 1738년(영조 14)까지는 서인계와 남인계가 번갈아 가며 원장을 맡았다. 남인계 서원으로 일컬어지는 도남서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상주 지역 향촌사회 동향과 연결지어 살펴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주는 창녕성씨 일문을 중심으로 화양서원에 버금가는 흥암서원이 건립되었고, 1716년(숙종 42) 어필편액까지 하사받으면서 이들의 위상은 보다 더 강화되어갔다. 이들은 서산서원과 운계서원을 건립하여 자파세력의 결속을 다져나갔고 1724년(경종 4) 영조의 즉위로 노론정권이 수립되자 1725년(경종 5) 2월 향교 장악까지 시도하게 된다.<sup>87</sup>

그리고 한 달 뒤 흥암서원에서는 도남서원 『심원록』에 상주목사 趙正萬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알고 향의통문을 보내왔다. 조정만은 송시열·송준길의 문인으로 상주목사 당시 신임사회에 연루되어 파직, 유배된 인물이었다.<sup>88</sup> 도남서원 측이 이름을 지운 자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서원 측 인사들은 향중의 논의를 거쳐 이름을 지운 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흥암서원에도 답통을 보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원장이던 권상일은 黨習의 폐단을 지적하는 한편 향교로도 답통을 보냈다. 향교로 답통을 보낸 것은 성이한 등 노론계 인사들이 교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교를 장악한 노론계 인사들은 이후 도남서원까지 장악하여 1725년 6월 26일 校任 成徹·성이한은 김해의 상소 일행 여덟 명을 데리고 서원에 난입하여 성덕장을 원장으로, 成爾湜·金和鼎<sup>89</sup>을 재임으로 선출하였다.<sup>90</sup> 이들은 약 2년간 서원의 원임을 지내게 된다.

이후 도남서원의 원임은 1727년(영조 3)~1732년(영조 8)까지 남인계가 맡았다가 1735년(영조 11)까지는 다시 노론계가 장악하게 된다. 이는 1728년(영조 4) 일어난 무신난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과 일부 남인이 가담한 무신난으로 인해 영남은 반역향이 되었고, 남인계였던 도남서원

87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2월 17일.

88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3월 9일 ; 이수환, 앞의 논문, 75쪽.

89 도남서원 『임원록』에는 金弘鼎으로 기록되어 있다.

90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6월 26일. 이때 동행한 상소 일행은 경상도 유학 李道章을 소두로 한 柳鳳輝의 처벌상소로 보인다. 당시 성이한 등도 이 상소에 참여하였다.(『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 20일, 9월 21일)

역시 향촌 내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었다. 상주 출신으로 무신난에 연루된 曹景洙·景泗, 洪益龜, 金弘壽은 향안에서도 삭제되었으며<sup>91</sup> 이중 曹景洙·景泗, 洪益龜은 도남서원의 원임을 역임한 바 있었다. 특히 홍익귀는 정종로의 외조부이자 난의 주모자인 박필현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도남서원 측은 이들과의 연결을 차단해야만 했고, 서원 소장 고문서 중에는 그러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확인된다.<sup>92</sup> 반면 노론계에서는 성이흥이 박필현을 포획하여 공신이 된 박동형을 만나 홍암서원 사당에 참배하는 등 자과세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있었다.<sup>93</sup>

이후 서원의 원장은 1735년 남인계 李麟至가 역임하였다. 그는 1678년(숙종 4) 송시열의 고묘소를 올려 성호영·채하징과 대립했던 이재현의 아들로 전형적인 남인계 우복학맥의 일원이었다.<sup>94</sup> 그가 원장을 맡은 시기 상주 함창권에서는 曹世溥·蔡景沉 등이 양송문묘종사소를 올림으로써 남인계와의 대립이 극대화 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1년 뒤 이인지는 양송문묘종사 반대소의 소두가 되어 상소를 올림으로써 상주권 노론계에 정면 대응하였다. 다만 이때 그는 先正을 무함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 결과 도남서원 원장직은 다시 서인계로 돌아갔다. 특히 마지막으로 원장을 맡았던 성이한은 같은 해 金尙憲書院이 건립될 때 收含有司로 참가한 바 있다.<sup>95</sup>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은 결국 향촌 내 해계모니 장악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주의 노론계 인사들은 이미 사액과 어필편액까지 하사

91 『商山鄕彥錄』上, “曹景洙戊申杖斃, 曹景泗戊申杖斃, 金弘壽戊申杖斃, 洪益龜 戊申罪謫甲子仲雪”

92 1709·1710년 『분향록』과 1724년 『심원록』에는 曹景洙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그는 景泗, 景河, 景江, 景溯 등과 함께 무신난에 가담하여 처형당했다. 또 1712년 『분향록』과 1721년 『임원록』에는 洪益龜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그는 정종로의 외조부이며 무신난 주모자인 朴弼顯의 자백에 이름이 거론되어 역모의 실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처벌받았다.(『승정원일기』 영조4년 5월 6일)

93 김학수(2016), 앞의 논문, 217쪽.

94 김학수(2007), 앞의 논문, 309쪽.

95 임노직(2005), 「法聖日記」,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4월 6일 기사.

받은 흥암서원이 있었고, 서산서원, 충의단까지 건립하여 세력을 확대시켜갔다. 하지만 이들 서원은 어디까지나 일부 노론계 가문의 공론 수렴처였으며 상주 사론 전체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었다. 반면 도남서원은 재임이 향교 도유사와 함께 赴學都目的 작성권한이 있었고, 서원 운영 역시 특정 가문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문에서 폭넓게 참여하고 있었다.<sup>96</sup>

이후 도남서원은 1743년(영조 19)부터 19세기까지 당대 석학이자 정종로 문인이었던 柳壽春류진 증손을 비롯하여 李敬胤이만부 증손, 姜世綸 등이 원장을 맡으며 강학을 이어갔고 서원의 위상 역시 강화되어 갔다.<sup>97</sup>

#### IV. 맺음말

이상 17~18세기 상주지역 남·노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을 도남·흥암서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7세기 도남서원은 서애·우복문인을 중심으로 상주 전 사족층이 참여하여 건립되었고, 대체로 남인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96 송석현(2016), 앞의 논문, 499, 508쪽.

97 도남서원 소장 『심원록』과 興忠保存委員會(2006), 『興巖書院誌』 수록 『심원록』의 방문객 수치를 통해서도 19세기 서원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도남서원의 경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1824년 240명을 시작으로 1857년 191명까지 평균 97명이 방문하였다. 반면 흥암서원의 경우 평균 20명이 방문하여 일정부분 차이를 보였다.

	1824	1825	1826	1828	1829	1830	1831	1832	1854	1855	1856	1857	
도남	240	142	64	21	36	33	53	179	21	110	85	191	
	180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흥암	33	49	59	45	40	21	28	26	74	30	15	22	16
	1813	1814	1815	1817	1821	1839	1840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흥암	43	16	14	9	44	17	9	3	4	9	36	1	6
	1847	1848	1849	1850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흥암	8	17	2	4	2	12	4	51	7	14	6	6	10

이 시기는 당색의 갈등 보다는 류성룡·정경세의 추배과정에서 안동·예안 사립과의 갈등이 수반되었고, 상대적으로 여헌학단과의 교유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서원 방문자를 기록한 『심원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660년 도남서원은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을 중건하기 위해 15개읍에 부조를 요청하였다. 각 지역을 보면 안동·예안권은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우도 지역이 많았는데, 산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부조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8세기 상주에는 집권노론의 비호 아래 흥암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서원은 상주의 노론계 가문 창녕성씨, 인천채씨, 평산신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이들은 서산서원과 충의단까지 건립하며 세력을 결집시켜나갔다. 나아가 1725년 2월 향교 장악에 이어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상주목사 趙正萬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계기로 향의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해 6월에는 도남서원까지 장악하고 원장을 선출하면서 남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벌였다. 이후 1738년까지 남·서인계가 번갈아 가며 원장을 맡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도남서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향촌 내 해계모니 장악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주의 서인세력들은 이미 흥암·서산서원, 충의단까지 건립하여 세력을 확대시켰으나 이곳이 상주 사론 전체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성이한 등의 서인세력들은 영조 즉위와 함께 남인에 대응하기 위해 향교장악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상주사론을 대표하는 도남서원까지 장악하려 한 것이다.

거기다 1728년(영조 4) 일어난 무신난으로 상주의 남인세력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난에 연루된 曹景洙·景泗, 洪益龜 등은 모두 도남서원을 출입한 인사들이었다. 도남서원은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켜나갔고, 반면 노론세력들은 더욱더 자파세력 확보에 경주하였다. 그러한 제반 상황들이 반영되어 도남서원 원임직 장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1743년부터 다시 남인계가 원장을 맡았고 19세기에는 당대 석학이자 정종로 문인이었던 류심춘(류진 증손)을 비롯하여 이경유(이만부 증손), 강세륜 등이 원장을 맡으며 서원의 위상 역시 강화되어 갔다.

## 【참고문헌】

### 1. 사료

『현종실록』, 『숙종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서원등록』  
 鄭經世『愚伏集』, 權相一『淸臺日記』, 申碩蕃『百源集』, 洪汝河『木齋集』, 張應一  
 『聽天堂集』, 張顯光『旅軒先生續集』, 金垞『溪巖日錄』, 鄭仁弘『來庵集』, 鄭蘊『桐  
 溪續集』, 『旅軒先生及門諸賢錄』, 金宗休『書巢集』, 趙綱『龍洲遺稿』, 李野淳『廣瀨  
 文集』, 柳珍『修巖先生年譜』, 申楫『河陰集』, 朴應衡『南阜先生文集』, 宋浚吉『同  
 春堂續集』, 權尙夏『寒水齋集』, 『華陽志』, 『興巖書院事實錄』, 權斗寅『荷塘集』, 『  
 商山鄕彥錄』, 도남서원 소장『任員錄』, 『尋院錄』

###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1999),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박병련 외(2004),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윤희면(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우인수(2015),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이수환(2001),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이수환(2014), 『서원향사: 홍암서원·대로스』 국립무형유산원  
 興忠保存委員會(2006), 『興巖書院誌』, 대진사

### 3. 논문

김순헌(2022),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학수(2007),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학수(2011), 『道南書院의 창건과 학문·정치·사회적 지향』,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김학수(2016), 『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  
 사학보』 77, 조선시대사학회  
 김형수(2005),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송석현(2015),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석현(2016),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 우인수(2013),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유기선(2003), 「17~18세기 尙州癯校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훈(2019), 「16~18세기 문경 近品書院의 변천」, 『영남학』 7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병훈(2020),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嶺南學』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수환(2016),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재현(2014),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대구사학』 117, 대구사학회
- 임노직(2005), 「法聖日記」, 『국학연구』 6, 한국국학진흥원
- 정석태(2021), 「신산서원의 강학전통」, 『민족문화논총』 79집 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채광수(2020),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 10, 한국계보연구회
- 채광수(2021),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Abstract

The Members Analysis in Namin·Noron Line Seowons  
in Sangju Regi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ocusing on Donam·Heungam Seowons—

Park, So-Hee\*

In Sangju, there are Donam and Heungam Seowons, which represented Namin and Noron lines in Yeongnam in the late Joseon era. Donam Seowon was established by all the literati classes in Sangju, mainly the followers of Ryu, Seong-ryong and Jeong Gyeong-se in the 17<sup>th</sup> Century. There were conflicts with the Sarim in Andong and Yean, which had been arising from the process of enshrinement of Ryu, Seong-ryong and Jeong Gyeong-se rather than those derived from the factions, while continuing the relationship with Yeoheon school. These could be confirmed by *Shimwonrok*, the records of the visitors of the seowon.

Since then, in 1660, Donam Seowo requested donation to 15 eubs in order to rebuild Myeonryundang which had been demolished by fire. When reviewing the regions, Andong and Yean communities were omitted, while the Udo regions were relatively dominated.

Heungam Seowon was built under protection by the ruling Noron in Sangju in the 18<sup>th</sup> Century. The seowon was run by such the houses of

---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at Yeungnam University

Seong of Changnyeong, Chae of Incheon, and Shin of Pyeongsan, the Noron groups in Sangju and they built Seosan Seowon and Chunguidan, later, uniting their groups. They made the claim when they found that Sangju's local governor Cho, Jeong-man's name was deleted in *Shimwonrok* in Donam Seowon, dominated this seowon, and elected the head from their own faction, having conflicts with Namin. It implies that there were so intense conflicts around Donam Seowon. However, since 1743, Donam Seowon's head was elected among Namin Line, and then, Ryu, Shim-choon(a great-grand son of Ryu, Jin) who was a famous scholar and a follower of Jeong, Jong-ro at that time, Lee, Kyung-yu(a great-grandson of Lee, Man-bu) and Kang, Se-ryun were inaugurated as the head of the Seowon, enhancing the institution's reputation.

Key word : Jeong Gyeong-se, Ryu Seong-Ryong, Donam-Seowon, Heungam-Seowon

논문 투고일: 2022. 07. 26 심사 완료일: 2022. 08. 22 게재 확정일: 2022. 08. 29